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1997년 찬양대원 이번주 임명

1997년도 찬양대원 오늘과 11일(수) 임명식 글로리아중창단 · 미가엘찬양대 새로 발족

1997년도에 봉사할 찬양대원이 임명된다.

임명식은 가브리엘 · 할렐루야 · 임마누엘찬양대는 오늘 I · II · III부 예배, 베들레헬찬양대는 찬양예배, 호산나 · 시온찬양대

는 11일(수) I · II부 예배 시에 각각 거행된다.

현재 우리 교회에는 6개의 찬양대가 구성되어 있어서 주일 I · II · III부 예배와 찬양예배, 수요일 I · II부 예배의 찬양을 담당하

고 있다. 특별히 찬양예배를 담당할 베들레헬 찬양대는 남성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요일부 예배의 찬양을 담당할 호산나 찬양대는 여성만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찬양대는 찬양대원 임명식을 마친 오늘부터 각 찬양대별로 총회를 갖고 찬양대의 질적 성숙과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찬양대의 목적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에 모범을 보이며 온 교회와 목회에 신령한 유익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글로리아중창단 새로 출범 미가엘찬양대도 발족키로

글로리아중창단이 내년부터 정식으로 찬양위원회 산하 중창단으로 새로 출범한다. 여성들로 구성된 글로리아중창단은 기타, 크로마하프 등 다양한 악기를 활용하여 그간 목회자신학세미나, 김치세미나 등 교회의 행사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봉사해왔다.

또 미가엘찬양대도 새로 발족된다. 주로 청장년층으로 구성된 미가엘찬양대는 주일의 '찬양의 시간'과 금요일새기도회 시작 전 찬양집회를 담당하게 된다.

글로리아중창단과 미가엘찬양대는 오늘 찬양예배 때 임명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찬양위원회 내에는 기존 6개 찬양대에 더해 2개의 조직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

1997년도 찬양위원회

지도 임진태 목사

위원장 윤봉준 장로

찬양대	대장	부대장	지휘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가브리엘찬양대	정병무	노송성	허희철	안진희	안선영
할렐루야찬양대	윤봉준	조정식	박정신	조은주	정은영
임마누엘찬양대	김상철	이복규	배영준	한현숙	백송희
베들레헬찬양대	이영기	박동춘	임훈규	유혜련	홍혜란
호산나찬양대	김윤자	김상옥	서희숙	홍혜란	-
시온찬양대	김영준	김형택	강민희	이주은	양경실

찬양위원회 직제 개편...총무제 없애기로

1997년부터 각 찬양대 내의 직제가 개편된다.

찬양위원회에서는 현재 찬양대의 총무제를 없애기로 하였다. 따라서 찬양대의 전체 행사 및 찬양대 업무 총괄과 찬양대 운영,

진행 등은 대장이 하게 되며 기존 총무 역할의 일부를 서기가 대신하게 된다.

또한 파트장을 포함한 모든 직책을 대장과 부대장이 임명하기로 하였다.

'97 제직회 임원진 확정

1997년도 제직회 임원진이 확정, 발표됐다. 확정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기 서문석 집사
부서기 이재원 집사
회계 오정수 장로
감사 홍정호 장로

스데반회 총회

스데반회 총회가 14일(토) 오후 5시 2층예배실에서 개최된다. 스데반회는 우리 교회 안수집사들의 모임이다.

권사회 회장에 전인화 권사



권사회 총회가 6일(금) 오후 7시 2층 예배실에서 있었다.

이날 총회에서 1997년도 권사회 회장에 전인화 권사가 임명됐으며 부회장에는 이영자 · 우선자 권사가 각각 임명됐다. 총회 후 권사들은 새해의 계획들을 점검하며 1997년도에는 더욱 힘써 기도하며 봉사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간성경공부” 마무리 미린 문제지는 접수

오늘로 '1년 1독을 위한 주간성경공부' 올해 마지막 문제지가 배포된다.

오늘 배부된 문제지를 포함하여 그간의 모든 문제지는 18일(수) II부 예배 후까지 계속 접수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그간 '주간성경공부'의 참여도와 채점점수를 계산하여 성적이 우수한 성도에게 29일(주일) 찬양예배 때 시상하기로 하였다.

성탄축하 공연

21일(토) 서초구민회관에서

'96 성탄축하공연이 21일(토) 오후 7시 서초구민회관에서 열린다. 교회설립 5주년 기념행사의 하나이기도 한 이번 공연은 우리 교회 필그림예술단이 주관하여 교회학교 전체가 참여하는 뮤지컬이다.

공연장의 좌석이 제한된 관계로 초대권을 발행하지만 별도의 요금은 받지 않고 당일 행사장에 모금함을 설치할 예정이다. 성금은 전액 이웃을 돕는 데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초대권의 구입은 주중에 사무국이나 테이프보급소 또는 다락방장을 통해 하면된다.

이번에 공연될 뮤지컬 “침묵의 노래”는 천지창조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사건까지의 내용을 담아 성도들은 물론 불신자들도 큰 메시지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음악에 맞추어 수화로 진행되므로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도 출연과 관람이 가능하다.



창세기
강해

“야곱아, 야곱아!”

(창세기 46장 1 - 7절)

이종운 목사

하나님께서서는 중대한 변화가 요구될 때마다 그의 종들을 거둬하여 부르셨습니다. 약속으로 받은 아들을 제물로 바쳐 칼을 내려치려 한 위기의 순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을 헌신하기로 작정한 어린 사무엘을 여러차례 부르셔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과도기를 책임지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모세를 부르신 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때였으며, 다메섹 도상의 사울을 부르신 순간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이 변화하여 복음의 증거자가 된 순간으로서 인류 역사에 새로운 획기가 되었습니다.

목은 해를 보내며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12월을 맞이하여 우리는 새로운 결심과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있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나타난대로 부르심을 받은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1. 큰 변화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인간 야곱

야곱은 두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 있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소식과 바로의 수레를 보고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기는 하였으나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는 다시 두려움이 엄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의 경계가 되는 곳으로서(삼상3:20, 삿20:1 참조) 그곳을 지나는 것은 약속의 땅을 넘어 광야길로 접어드는 것일 뿐 아니라 그가 가야 할 애굽은 영광의 나라가 아닌 우상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땅에서 실수를 범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많은 위험부담을 안은 채 그의 모든 권속과 재산을 이끌고 브엘세바를 지나 낮선 애굽으로 향하는 늙은 야곱의 심경에는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브엘세바의 야곱에게와 같이 변화와 결단이 요구되는 고독과 아픔의 순간들이 도래합니다. 그러한 때에도 “야곱아, 야곱아!” 라고 부르시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신자 야곱

야곱은 자신의 과거 일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그가 두려워하던 때의 경험들을 상기했습니다. 팔죽 한그릇에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은 후 형의 노여움이 두려워 하란으로 피해가던 도중 벤엘의 뜰에서 함께 하심을 보이셨던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후 형을 다시 만나러 오기 전날 밤 압목장 나룻터에서 밤새 두려워하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대해 두려움을 가득 안고 형에게 돌아오던 그대에 천사와 씨름하여 얻어낸 하나님의 축복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놀라운 체험을 가진 야곱은 대사를 앞두고 이제 다시 두려움에 처했으나 바로 그 두려움의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과거에 축복하시고 신실하게 함께 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에도 나타나 인도해 주실 것을 기원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기도에는 철저한 회개와 뜨거운 감사뿐 아니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등지고 애굽으로 그의 행보를 옮겨야만 하는 이유를 묻는 기도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치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듯 이유 모를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떤 변화의 기로에서 두려움과 이쉬움을 갖고 방황할 때가 많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무모한 후회나 승리감에 도취하는 일 없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묻고 기도로 응답받는 귀한 송년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종 야곱

야곱에게 애굽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두려움의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브엘세바를 떠

납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믿는 자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곧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며 찬양할 백성을 채우시리라는 새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의 앞날에도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임이 확인되면 그곳이 비록 애굽과 같이 어려운 곳이라도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좋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삶 속에 큰 변화가 요구될 때 특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이들은 두려움에 떨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담력을 가져야 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라고 부르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기억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 사랑과 능력과 부르심에 응답하여 새로 오는 날들에 믿음과 순종으로만 전진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 순례자 컬럼 ✦

기도

주님이시여! 당신은 우리를 위해 가난을 택했으며, 어디서나 우리와 같으시기 원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이 겪으신 수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옵소서. 증오와 질투로부터, 교만과 무자비한 판단으로부터, 게으름과 십자가의 두려움으로부터, 진리에 냉정함과 세속적 가치관으로부터 오, 거룩한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으니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이 영혼 당신 손에 맡기오니 유희의 순간 속에서, 시련의 흑암속에서 주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로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한 해의 문턱에서

각지에서 보내온 훈훈한 감사의 마음들

○...연말이 되면서 한 해동안의 기도와 물질적 후원에 감사하는 편지가 교회로 답지하고 있다. 다음은 국내외에서 보내온 편지의 일부이다. ...○

팜 홀린 농부가 풍년을 감사하듯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저희도 풍성한 수확을 인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추수의 기쁨을 기도로, 헌금으로, 봉사로 협력해주신 서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작은 자들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성도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매일 중보기도와 복음전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날마다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의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고전12:22)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어찌하든지 우리의 연약한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더욱 존귀하게 되시기를 열망하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겨자씨만큼 작으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있기에 계속하여 자라고 있습니다. 훗날에는 큰 나무가 되어 우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뿐 아니라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주시는 성도님들도 후한 상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후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작은형제공동체 이종수 목사

주 은혜 중 평강하실 줄 믿고 기도편지 올립니다.

김치신학세미나를 통해 제3세계권 선교에 앞장서시는 이종윤 목사님과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그 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활력소가 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뿐 아니라 해외에 나와있는 많은 동역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천하지의 모든 권세를 주신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서울교회 위에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주사랑 선교사

주 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16:9)는 말씀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습

니다. 저는 이곳에 부임한 후 2년동안 많은 것들을 경험하였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시81:10)는 말씀에 의지하면서 “이 눈에 보기에겐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하는 344장 찬송을 부릅니다. 최후의 승리는 주님 것임을 믿으며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미력한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선교비를 보내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선교의 결실이 있도록 계속 협력해 주십시오. 보길중앙교회 류영구 목사

성 전건축의 대과제를 앞에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교회를 도와 민족복음화를 위해 힘쓰시는 서울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받았으니 주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너무 힘이 들어 지쳐있었는데 서울교회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뜻 이루기 위해 애쓰시는 서울교회의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행통하기를 기원합니다.

명곡교회 김은혜 전도사

물 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교회에서 보내 주신 장학금 덕택에 저의 자녀가 학업에 정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학업에 열중하더니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 자녀교육의 문제에 관심을 써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새벽마다 서울교회와 이종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일 잊지않겠습니다.

금성교회 김선영 목사

주 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어려운 농촌교회를 도와주시는 서울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농촌교회의 현실은 접하면 접할수록 어려움이 더해갑니다. 마을이 고령화되어 앞으로는 노인을 위한 목회방법을 강구해야할 실정입니다.

차제에 서울교회의 후원이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미력하나마 서울교회의 부흥과 저희교회를 후원해주시는 성도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을 위해 기도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서달은 목사

산 골 오지에 자립하지 못한 교회는 한 해를 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괴로운 일이 참으로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가득한 기쁜 선물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니 큰 용기를 얻습니다. 더욱 힘을 내어 복음사역에 힘쓰겠습니다. 미곡교회 장철수 목사

사 랑의 후원금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잘 활용하겠습니다.

대구교회 김삼의열 목사

후 원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인 물질은 “반드시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빌4:18)이 될 것입니다. 미국 파사데나 조재선 목사

“세 월을 아끼라”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실감나는 96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1996년은 저희 교회 예배당을 신축한 잊지 못할 해입니다.

저희는 1997년 표어를 “5대양 6대주를 가슴에 품은 열정적인 성도들”이라고 정하였습니다. 고령화와 타성에 젖어 있고 물질적으로는 다른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연약한 교회지만 성도들 개개인은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협력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귀 교회에 말씀이 흥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대암교회 이일준 전도사

반 갑고 기쁜 소식이 있어 글월을드립니다. 서울교회 농촌전도단이 작년 이곳에 오셔서 뿌린 씨앗이 자라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정이 주님을 영접하고 학습을 받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돌립니다.

이곳 주민 모두가 여러분을 다시 한 번 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새로 부임하여 얼마되지 않았으나 여러분의 전도의 결실을 보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용정교회 이한웅 전도사

우리와 결연한 많은 농촌교회에서 호도, 유자, 사과, 오징어, 김 등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100교회 운동' 새해에도 계속

1997년도 후원자 신청 접수

농어촌미자립 교회를 돕는 '100교회 운동'이 새해에도 계속된다.

우리 교회는 교회설립 3주년을 기해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돕는 '100교회 운동'을하기로 결정하고 1995년 1월부터 이 운동을 시작했다.

남선교회, 여전도회, 다락방, 교회학교, 찬양대 그리고 개인과 가정 등이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결연하여 1995년에 106개 교회,

1996년에 110개 교회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였다.

100교회운동본부에서는 개인이나 부서별로 올해에 결연한 교회를 내년도에 계속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행정상의 확인을 위해 모두 재신청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이 일에 새롭게 참여할 성도들의 신청도 기다리고 있다.

문의는 전도위원회 혹은 이상진 목사에게.

'97 청지기수련회

강사에 임택진 목사, 6일부터 직분자별 특강도

1997년도 청지기 수련회가 1월 5일(주일) 헌신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하여 13일(월)까지 진행된다. 이번 청지기수련회의 주제는 "그리스도이 몸을 세우려 함이라"(엡4:11, 12)이다. 강사는 임택진 목사(청량리중앙교회 원로목사)이며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원,

예배위원, 교구일꾼, 제직, 전도회 임원 등 직분자별 특강도 가진다.

장로수련회는 13일(월)에 새벽기도회 후에 가지게 되며 강사는 이종윤 목사이다.

이 기간 중 새벽기도회는 5시에 시작한다. 직분자별 특강 내용과 강사는 다음과 같다.

구분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원	예배위원	교구일꾼	제직	전도회임원	장로
일자	6일(월)	7일(화)	8일(수)	9일(목)	10일(금)	11일(토)	13일(월)
5:00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강사: 임택진 목사					새벽기도회	
6:00	바른 교사와 바른교육	찬양대원의 자세	예배위원의 실제	교구일꾼의 실제	봉사자의 자세	전도회임원의 실제	성경적인 장로상
6:30	박귀환 목사	임진태 목사	김명현 목사	이순환 목사	이성득 목사	원 호 목사	이종윤 목사

■ 목회자·교우동정 ■

- * 이종윤 목사는 10일(화) 한국로잔위원회를 주재한다. 또한 13일(금)에는 기독교교도 소추진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 김상철 장로(4교구)는 5일(목) 미국 아이오아주에 있는 코넬대학에서 명예 인문학박사 학위를 받고 7일(토) 귀국하였다.
- * 박철훈 장로(이경희 권사, 11교구)는 7일(토) 면목동에 (주)엘지중부가전을 개업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433 - 6600)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대강절에 - 성탄절의 유래와 풍습 ②

왕의 족보와 동정녀 탄생

(마1:1 - 17, 눅3:23 - 38)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로서의 예수와 바벨론 왕국이 강조되어 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 네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 네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 네대더라"

즉 복음서의 신학적 주제인 왕과 그의 왕국을 중심으로 족보가 설명되고 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가지 교리가 있다.

첫째 그 나라의 왕권이 메시아에게 있다는 것이다.

둘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에까지 소급되어 그리스도께서 모든 족속의 구주임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족보 중에 4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 중 라합과 룻은 이방인이었고 다달, 라합, 밋세바는 모두 약점을 가진 아이들였다. 이들의 이름이 메시아 족보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 은혜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임태되시고 처녀의 몸을 통해 탄생하셨다. 동정녀 탄생이 아닐 경우 예수님은 구주로서의 자격이 없게 된다. 그러나 마리아는 성령으로 임태하였다고 기록되고 있으며(눅1:34 - 38) 요셉과 마리아만이 인간으로서의 예수의 부모였다(마1:16).

왕의 출생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구체적으로 예고되었고(눅1:31 - 33, 렘31:22), 요셉에게도 나타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천사의 예고로 요셉의 고민이 해결되었다(마1:18 - 25). 그후에 목자들에게도 나타났다(눅2:8 - 14).

인간의 몸으로 오신 왕은 찬양을 받으셨다. 목자들로부터 시몬과 안나로부터(눅2:22 - 38), 동방박사들로부터(마2:1 - 12) 찬양을 받으셨다.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찬양대를 위하여
2. 1997년도에 새로 임명을 받는 각부서 임원들을 위하여
3.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12월이 되도록
4. 농어촌 자매교회를 위해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